

이미지

Mi Ji Lee

Founder & CEO at Kore Meta Inc.

1. 간단한 자기소개

저는 XR(확장 현실) 기술을 활용해 교육 혁신을 선도하는 Kore Meta(코어 메타)의 대표입니다. 캐나다에서 학생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경험을 바탕으로, XR 기술을 접목한 게임화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 목표는 ‘Kore Learning’이라는 콘셉트를 통해, 학습이 동기를 부여받을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재미있고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XR 환경에서 실현하는 것입니다. 교육의 한계를 넘어서 누구나 쉽게, 그리고 즐겁게 배울 수 있는 학습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2. 이전 커리어 및 현재 진행중인 사업 소개

저는 캐나다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에서 국제 관계와 동아시아학을 복수 전공하였고 영국 University College London 에서 개발 행정 및 계획학을 석사로 전공하였습니다. 캐나다 TD 은행, 한국 외교부와 기후변화센터 등에서의 경력을 쌓았습니다. 이후 8 년 동안 전업주부로 지내며 자녀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시작한 것이 교직으로 이어졌습니다.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교육 콘텐츠의 디지털 전환을 고민하다가 메타버스 기술을 접하게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확장현실 교육 콘텐츠 개발 회사인 Kore Meta 를 설립하였으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개발 중입니다.

현재 출시된 **Kore VR1** 은 사용자가 가상 현실 (Virtual Reality) 환경(한옥 마을)에서 한국어 알파벳을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몰입감 있는 게임 요소를 통해 재미있고 효과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Kore VR2** 는 한국어 단어와 문법을 가상현실 내 현대화 된 한옥에서 배울 수 있는 미니게임을 포함하고 있으며, 한국어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는 한국 요리 레시피도 멀티플레이어 환경에서 다른 이들과 같이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 중입니다. 이 두 앱은 사용자가 게임화 및 몰입형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 년 메타 뉴욕 지사에서 열린 해커톤에서 교육분야 톱 3 위를 차지하고 현재 개발 중인 **멀티버스 카이텐주시**는 일본어 알파벳 학습을 위한 혼합현실(Mixed Reality) 앱입니다. 사용자가 스시 셰프가 되어 회전초밥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멀티버스에서 방문한 손님들에게 수시를 제공하면서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배울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언어 학습과 문화 체험을 결합하여, 사용자가 일본 문화를 직접 느끼며 배우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 외에도 몇 대학과의 공동 연구를 논의 중에 있으며, 언어 학습을 넘어 확장 현실 관련 교육 회사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목적

저는 8 년간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을 동안, 아이들에게 엄마로서 사랑과 돌봄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지식과 가치를 전해줄 수 있을지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한국어와 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직업적인 기회를 열어준다는 점을 깨닫고, 북미에서 태어난 제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원 과정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보다 재미있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언어를 가르치고자 노력하며 교육 방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19 로 인해 비대면 수업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디지털화된 교육 콘텐츠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메타버스와 그 이후 확장현실이라는 기술이 교육의 미래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이 확장된 시공간을 초월하며, 우리의 상상력만이 한계인 확장현실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모두가 효과적이고 즐겁게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과, 이 뛰어난 기술로 교육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더 큰 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회사를 설립하였고 확장현실 및 교육에 열정이 있는 분들과 함께 개발 중 입니다.

4. 캐나다는 비즈니스 하기 좋은 나라인가요?

캐나다는 전체적으로 비즈니스 환경이 우수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특히 테크 산업과 관련하여 토론토 지역은 비즈니스를 위한 캐나다 내 훌륭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대학과 지역 사회를 포함해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액셀러레이터 및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Elevate 와 Collision 같은 대규모 테크 관련 이벤트도 활발하게 개최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과 같은 대형 테크 기업들이 토론토 주위에 위치해 있어 강력한 기술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도 비즈니스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리콘 밸리에 자주 출장하며 해당 지역의 생태계와 비교해볼 때, 세계 스타트업 및 테크사업 관련하여 최고인 샌프란시스코가 더 발전된 투자 및 스타트업 지원 환경을 갖추고 있지만, 토론토 역시 캐나다 경제의 중요한 허브로서 비즈니스에 적합한 장소라고 믿습니다.

- 개인 링크인 페이지: <https://www.linkedin.com/in/miji-lee-kore-meta/>
- 회사 링크인 페이지: <https://ca.linkedin.com/company/koremeta>
- 회사 홈페이지: koremeta.com